

 <b>기획재정부</b>		<b>보도자료</b>	
<b>보도일시</b>	2021. 6. 9.(수) 14:30	<b>배포일시</b>	2021. 6. 9.(수) 14:00
<b>담당과장</b>	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조영욱 (044-215-8550)	<b>담당자</b>	이보영 사무관 (shindw0324@korea.kr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홍성완 (044-202-6320)		한소희 사무관 (soheehan@korea.kr)
	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(044-202-7307)		박대정 사무관 (ralarala@korea.kr) 이상전 사무관 (econsoccer@korea.kr)
	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이옥형 (042-481-4383)		방지현 서기관 (bangjeehyun@korea.kr)

**홍남기 부총리,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 
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**  
 - 민간이 주도하고, 정부가 지원하여  
**5년간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3천명 양성**

- **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(이하 기재부) 장관**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 장관, 안경덕 고용노동부(이하 고용부) 장관,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 창업벤처혁신실장과 **6월 9일(수) 14: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**(대표: 김인기)를 방문했다.
  - ‘코드스테이츠’는 ‘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하여 비전공·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,
    - **민간이 주도하여 SW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훈련기관**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.
- 이번 방문은 “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이 가장 잘 안다”는 인식하에 기업인·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「민·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」을 관련 기업, 훈련기관,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**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**하기 위해 추진하였다.

< 현장 방문 개요 >

- 일시: '21.6.9.(수) 14:00~15:10
- 장소: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(코드스테이츠)
- 참석: **(정부)** 부총리, 과기정통부 장관, 고용부 장관, 중기부 실장  
**(소프트웨어업계)**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, 조준희 SW산업협회장,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, 나기홍 삼성전자 부사장, 백도민 NHN CIO, 조성범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, 최재호 드라마엔컴퍼니 대표  
**(훈련기관)** 김인기 코드스테이츠 대표,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  
**(청년)** 교육과정 참여 중인 훈련생 2명 등

-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통해 **예상 부족인력 2.9만명의 3배가 넘는 소프트웨어 인재 8.9만명**을 추가한 **총 41.3만명\***을 '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.

\* 대학 등 교육과정 양성 11만명 + 기존 정부 인력양성사업 21.4만명 + **추가 8.9만명**

-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**[단기] 중소·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 부족에 대응,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.**
  - **협회·기업·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기업이 직접 선발한 청년들에게 제공**하고, 정부는 **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\***할 계획이다.
    - ▲ 고용부: K-Digital Training(훈련비),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(인건비)
    - ▲ 중기부: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사업(채용설명회 등 매칭 지원) 예산 활용
  - 빅데이터, 게임 등 **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\*** 등이 주도한 **수요 맞춤형 훈련도** 제공한다.
    - \*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: 지역 산업계(상의·경총 등), 노동계, 지자체, 고용센터, 대학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(전국 17개 운영중) → 지역맞춤훈련 등 개발·공급
  - 아울러, **벤처·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**을 높일 수 있도록 **현장훈련 지원(S-OJT)을 대폭 강화\***할 계획이다.
    - \* (기존) 단기과정 → (개선) 장기과정 신설, **프로젝트 기반 훈련모델** 개발·실시 지원
- ② **[중기] 고급·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·대학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**하는 한편, 학교를 통한 **소프트웨어 전공자도 확대**한다.

- 기업이 대학 내에서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「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」,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「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」도 새롭게 추진한다.

\* 정부는 참여대학 풀(Pool) 구성, 대학·기업 컨소시엄에 운영비·교육비 등 지원

- 또한, 소프트웨어 전공자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\*을 확대하고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.

\* SW중심대학: 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SW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, 대학 SW교육을 혁신하는 대학(41개→25년 64개)

- 이와 함께,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(K-Digital Training), 이노베이션 아카데미,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등 기존 인재 양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, 기업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.

\* 현업종사자 강사 참여 확대, 기업의 교육과정 설계 참여, 현장훈련 강화 등

### ㉓ (인프라) 인재양성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.

-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활용하여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,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
\* HRD-Net과 고용·건강보험 등 관련 DB를 연계하여 성과통계 도출

- 초·중등 학생, 구직자, 군 장병 등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교육·훈련을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동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벤처기업협회, SW 산업협회,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,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□ 이어진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·차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질의·응답을 통해 ①중소기업의 SW인재 영입 어려움, ②디지털 교육 관련 규제완화 ③'취업멘토'와 같은 진로 상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.

□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하여 부족함 없이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.

□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“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SW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※ [붙임] 부총리 모두발언

[별첨] 민·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



기획재정부 대변인  
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pr@korea.kr](mailto:moepr@korea.kr)



## 붙임

## 부총리 모두발언

-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님, 그리고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
- SW산업은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방향 예측이 어려워 산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**유연한 인력공급체계가 절대 긴요**
  - **현장에 있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가장 잘 알고, 잘 키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** 기업가,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**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**
  - ☞ **관계부처, 관련기업, 훈련기관,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이 현장에서** 정부가 마련한 **SW인재양성 대책을 발표**하고, **산업계와의 업무협약도 체결**하고자 함
- 이곳 코드스테이츠는 '16년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하여 **민간주도의 Intensive한 인재양성방식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**하고, 비전공·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인재로 키운 기관
  - ☞ **민간이 주도하여 SW인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장소**중 하나로, 오늘 행사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

### < SW 시장 현황 및 인력양성의 필요성 >

-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**비대면 트렌드가 확산**되면서 IT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·서비스업 등 타산업에서도 **SW인재 영입경쟁이 치열**해지고 특히 **중소·벤처기업의 구인난이 심화**되는 경향
  - 향후 5년간 **SW분야 신규 인력수요가 35.3만명**으로,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과 정부사업을 통해 **배출되는 32.4만명 대비 약 3만명 정도 인력부족이 예상된다**는 **조사결과**도 발표('21년, SW정책연구소)
-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SW인재 양성 **신규사업\***을 신설하고, '한국판 뉴딜' 등을 통해서도 **SW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**
  - \* ('20년) K-디지털트레이닝, ('19년) 이노베이션 아카데미, AI대학원, 이노베이션스퀘어 등
  - 다만, 교육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**시차가 존재**하고, **교·강사, 훈련기관 부족** 등으로 기업이 원하는 **인재배출에는 한계**가 있어 기업들은 **SW인재 부족을 호소**함에 따라 정작 청년들은 취업,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**미스매치가 발생**
  - ☞ 이에 **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인재양성의 틀에서 벗어나** **중소·벤처기업 등 민간이 주도**하고 **정부가 이를 지원**하는 **새로운 인력양성 모델을 마련**

### < SW 인재양성 정책 주요내용 >

- 정부는 금번 「민관 협력 기반의 SW인력양성 대책」을 통해 **'25년까지 예상 부족인력 3만명(2.9만명)의 약 3배인 8.9만명의 SW역량을 갖춘 인재 추가 양성 방침**
  - 수준별로는 초급인재 14.5천명, 중급인재 72.6천명, 고급인재 2.4천명이며, 특히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**중급기술 인력 양성에 집중**투자
- (단기추진과제) **먼저 정부는 중소·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를 감안, 총 2.1만명의 중급인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양성**할 계획
  - ① 먼저, **중소·벤처기업 재직자 훈련을 보다 현장중심(S-OJT\*)으로 개편**하고, **재직자 고속권 신기술 훈련분야에 SW를 추가**하여 **훈련비 우대\*** 등 **정부지원 강화**
    - \* 전문기관(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)을 활용하여 기업진단, 직무분석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, 훈련체계 수립, 훈련인프라 지원, 훈련실시 등 종합 지원
    - \*\* 일반직무훈련 대비 훈련비 단가를 NCS 단가의 300% 범위내에서 지급
  - ② 또한 민간협화·디지털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훈련에 **정부가 훈련비·채용시 인건비 등을 지원**하는 **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,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**
- (중기추진과제) 이와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**'25년까지 고급인재(0.24만명)를 포함한 6.8만명의 인재를 추가적으로 양성**할 계획
  - ① 먼저 **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기초SW 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**하여 **우수 이수자를 채용 연계**하는 **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**를 **신설**, **정부가 교육비 등을 지원**
  - ② 또한 K-디지털트레이닝,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**성과가 인정된 기존 사업**을 **기업주도형\*으로 확대·개편**하고, **폴리텍·특성화고 학과개편도 추진**
    - \* 기업 등이 훈련 프로그램 개발, 현업자의 교강사 참여, 프로젝트 기반 훈련 중심 설계

### < 마무리 >

-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 등 **SW 신기술은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의 핵심동력**인 만큼 **SW 신기술을 보유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는 곧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**
  - 금번 역점을 둔 **민간주도의 맞춤형 훈련**을 통해 청년들이 취·창업의 전진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**스킬업(Skill-Up)**하고, 배출된 SW인재가 IT업계를 포함한 **순산업의 스케일업(Scale-Up)**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

(모두발언 여기까지임)